

## 민주노동당대표 · 의원단과 한수연임원 간담회 개최



- 민주노동당대표 · 의원단과의 간담회 장면 -

이상만 중앙회장을 비롯한 한수연 임원단은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동안 한수연 사무총국에서 민주노동당(문성현 대표, 강기갑 의원, 강병기 최고위원)과의 당면 수산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연 임원들은 수산업의 근본적 희생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회차원에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현 대표는 한미FTA 협상은 하지 말았어야 할 협상이었으며 농민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전직 관료와 국회의원,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반발할 만큼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회장은 그동안 수산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 잇따른 재난으로 인해 농어업재난보상법마련과 북한수역 조업문제에 있어 정부간의 협상, FTA에 대비한 국내대책마련, 면세유 지원, 해양투기 중단 등을 건의하였다.

이날 문성현 대표는 한수연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리가 아니고 타당한 점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민과 함께 어촌 대책을 같이 세워나갔다고 말했다.